

바가지 요금 골퍼들 분통...호남만 '봉'

광주·전남 골프장 '배짱영업' <중> 코로나 특수 노린 폭리

광주·전남지역 골프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폭증에 발맞춰 이용객들은 안중에도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부정 여론을 수용한 대다수의 골프장이 이용료를 내렸지만, 유일하게 전국 시·도 중 호남지역 대중제 골프장은 평균 입장료

를 오히려 인상해 '배짱 영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펴낸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까지 전국 170개 대중골프장(퍼블릭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8% 하락했다.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 하락률이 가

수요 폭증에 배 불리기 영업 부당·과다 청구 피해 잇따라
일반적인 추가비용 통보도
이용객 불편 외면 대책 시급

장 높은 지역은 충청 지역으로 평균 평균 요금은 16만 6,000원에서 13만 8,222원으로 2만 7,778원(16.7%) 하락했다.

이어 강원 1만 8,334원(11.7%), 경기·인천 1만 9,375원(11.6%)이 요금

을 내려 뒤를 이었으며 영남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이는 대중골프장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용객들이 물리는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 등은 뒤로한 채 입장료만 지나치게 올리는 것이냐는 부정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호남·제주지역의 골프장들은 평균 요금을 오히려 인상하며 갑질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호남 골프장 평균 요금은 2,333원(2.2%)이 올랐으며, 제주 또한 4,983원(3.1%) 인상됐다.

주말 평균 요금도 회원제 2,000원(1.1%), 대중제 4,333원(3.1%)이 각각 올라 전반적인 가격 인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골프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폭증에 편승한 배 불리기 영업에 혈안이 돼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지역 골프장의 이용료 상승은 초과 수요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국내로 수요가 집중, 이용객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골프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인 이모 씨는 "1회 1인당 13만 원으로 안내받고 회당 이용료로 1년 동안 골프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6개월 뒤 골프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5만 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용객 박모 씨는 "약천후로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해 예약을 취소했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기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용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업 횡포 속에 대중 골프장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9일 오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1주기를 맞아 당시 현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고인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춤을 추고 있다. /김생훈 기자

"영면 하시길" ...학동참사 1주기 추모식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1주기를 맞아 9일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와 동구는 이날 오후 4시께 동구 삼상디지털플라자 학동점 일대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은 유가족·정

치권 인사·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추모 묵념·기도 ▲추모사 ▲추모시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으로는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위훈의 무대'가 열렸고, 사고 발생 시간인 오후 4시 22분이 되자 1분간 추모 묵념이 시작됐다. 이어 천주교·기독교·불교단체 대표

의 기도 등이 이어졌다.

이전의 학동참사 유가족 대표는 "꿈도 많고 친구도 많은 고등학생은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게 됐고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예쁜 딸이 수의사 되기 위해 들었던 노력의 시간들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면서 "오늘만큼은 비통하고 서러운 심정을 가라앉히고 고인들의 명복을, 평온한 휴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7강' 한비아 국제구호전문가·이대 겸임교수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연이 오는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별관)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국제구호 현장전문가이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한비아 이화여대 겸임교수입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UN CERF) 자문위원과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으로 활동 중인 한 교수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 미국 터프츠대 플래시 스쿨 인도적 지원학 석사, 미국 유타대학교 대학원 국제홍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문화협회 관광(개척 및 도전)분야 수상에 이어 시사저널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됐으며, 한국YWCA '젊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한 교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지도도를 보며 꿈을 키운 이야기와 전쟁 직후 아프가니스탄, 동아시아 쓰나미 현장, 파키스탄 지진현장, 국경 넘은 시리아 난민들 등 20년간 국제구호 최전선에서의 각종 에피소드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견디고 버티는 힘과 용기,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2년 6월 13일(월) 오후 7시
- ▶장 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별관)
- ▶강 사: 한비아 국제구호전문가·이화여대 겸임교수
- ▶강연주제: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 ▶문의전화: 전남매일 관리국 (062-720-1012)
- ※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후 7시 강의

M 전남매일

일본인 3천명, 목포 공생원 10월 찾는다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목포 공생원의 운영자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일본인 3,000명이 오는 10월 목포를 찾는다.

9일 전남도와 목포시,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본인 3만여명

이 참여하는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 기념 추진위가 구성됐다.

이 가운데 추진위에 참여하는 일본인 중 3,000명이 오는 10월 31일 목포를 방문해 '목포시민 감사합니다' 표지석을 제막할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